

대구주보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사순 제1주일 2016.2.14.(다해) 제1985호



관덕정 순교기념관 <사진 : 대구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 오늘의 전례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유혹을 받으셨다.” (루카 4,1-13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몸소 유혹을 받으시고 물리치심으로써 나약한 우리 인간도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본 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이라는 광야에서 수없이 만나게 되는 온갖 유혹과 갈등의 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순 시기를 시작하며 비록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신 예수님께 다시 한 번 유혹을 감당할 은혜를 청하면서 건강한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제1독서 신명 26,4-10

제2독서 로마 10,8-13

복 음 루카 4,1-13.

입 당 송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그를 해방시켜 영예롭게 하리라.
오래오래 살도록 그에게 복을 내리리라.

화 답 송 ◎ 주님, 환난 가운데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영성체송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영적 투쟁의 시기, 사순

김태형 베드로 신부 | 유천성당 주임

영적 투쟁의 시기, 사순절이 시작 되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 사순 시기를 특별히 “죄인인 아담에게서 새로운 생명인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는 시기”라 표현합니다. 이 교부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사순 시기에 그리스도교인은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기 위해 회개와 보속으로 하느님과 일치에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가톨릭교회는 4세기 로마제국으로부터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자 더 이상 순교를 통해 하느님을 증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순교를 방해하는 외적인 억압과 회유, 내적인 갈등과 유혹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느님을 증거하기 위한 투쟁의 대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대 은수자들은 스스로 광야로 나가 시련과 유혹의 환경을 만들어 극복함으로써 하느님을 증거하는 신앙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련과 유혹을 극복하며 각자 개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싸움을 영적전쟁의 시기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움직임은 차츰 그리스도교인들의 신앙 안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가톨릭교회는 전통의 역사 안에서 재의 수요일을 영적인 전쟁의 시작 날로 선포하고 40일간 스스로 악과 투쟁하며 하느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보속과 애덕실천의 시기를 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순 시기에 가장 중요시해야하는 삶은 하느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인은 사순 시기를 시작하면서 교회의 전통에 따라 하느님을 증거하기 위한 자신과 외부의 여러 가지 유혹들과 맞서는 투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증거하기 위해 투쟁해야 될 대상은 여러 가지 내적외적 유혹들입니다. 이러한 유혹들을 이기는 방법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도 유혹을 당할 때마다 하느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핵심인 복음, 그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성 보나벤투라는 “우리의 생활 안에서 애덕과 선함이 더욱 커질 수 있는 것은 악으로부터의 도망이 아니다. 악과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랑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즉 현재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그것이 크든 작든 거기서부터 출발하여 그 사랑을 더욱 키워나갈 때 우리는 악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을 키워나가는 것 그것은 하느님을 증거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투쟁의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의 정신, 복음의 원칙이 영적인 성장을 위한 우리 그리스도교인의 삶의 지표입니다. 복음정신이 우리의 삶에 깃들고 복음의 원칙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안내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교의 전통을 따라 이 사순 시기를 사랑을 통해 하느님을 증거하는 시기로 보내기를 희망합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성화의 2016년 사순 시기 담화문(요약)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마태 9,13)

히년 여정에서의 자비의 활동

1. 복음화 되어 복음화 하는 교회의 모습이신 마리아 : 하느님의 자비는 세상을 향하여 선포된 말씀으로, 특히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선포를 직접 체험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가브리엘 대천사가 전한 기쁜 소식을 들으신 마리아께서는 **마리아의 노래**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신 자비를 예언적으로 노래합니다. 요셉과 약혼하신 나자렛의 처녀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완전한 모습이십니다. 처녀이신 마리아께서 잉태하도록 하신 성령의 힘으로 교회는 복음화 되었고 지금도 복음화 되고 있습니다.

2. 하느님께서 인류와 맺으신 계약인 자비의 역사 : 하느님 자비의 신비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맺으신 계약의 역사에서 나타납니다. 하느님께서 언제나 자비로 충만하시고, 깊은 은유와 연민으로 당신 백성을 대하실 준비가 늘 되어 계십니다. 특히 백성의 불충으로 계약 관계가 깨어져 정의와 진리로 더욱 견고한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할 때에 그러하십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아드님께 당신의 한 없는 자비를 쏟아 부어 주시어 그 아드님께서 **강생하신 자비**가 되시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잘못을 저질러 당신을 등지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죄인에게조차도 다가가시고자 하십니다.

3. 자비의 활동 : 하느님 자비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하느님 자비는 인간이 충실한 사랑의 경험을 통하여 자비로워 질 수 있도록 합니다. 하느님 자비가 우리 저마다의 삶을 비추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의 전통에서 자비의 영적 육체적 활동이라고 불리는 것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도

록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기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비의 육체적 영적 활동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가난이라는 비참함에 무뎠진 우리의 양심을 다시 일깨워 주고, 또한 복음의 핵심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자비의 얼굴』, 15항).

우리 모두에게 이 희년의 사순 시기는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자비의 활동을 실천하여 우리의 실존적 소외를 극복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우리는 자비의 육체적 활동을 통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며, 쉴 곳을 마련해 주고, 찾아 주어야 하는 우리의 형제자매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집니다. 또한 우리는 조인, 교육, 용서, 권고, 기도와 같은 자비의 영적 활동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더욱 직접적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자비의 이러한 육체적 활동과 영적 활동은 결코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가난을 통하여 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몸을 만지며 자신도 불쌍한 거지임을 자각하는 은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에 나온 “교만한 자들”, “통치자들”, “부유한 자들”도 이 길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품에 안기고 과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기에 매우 좋은 이 사순 시기를 헛되이 보내지 맙시다! 거저 주어진 하느님 자비의 위대함을 접하시고는 당신의 비천함을 가장 먼저 깨달으시고 당신을 주님의 겸손한 종이라고 하신 동정 마리아의 어머니다운 전구를 통하여 이를 간청합니다.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해마다 신학기가 되면 유치원, 학교 등에서는 갓 입학한 신입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이 열립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처음 온 이들이나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하고 교육하는 행사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개요를 잡아주고 방향을 잡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동쪽, 동양을 뜻하는 단어 오리엔트(Orient)에서 파생한 오리엔테이션의 유래를 살펴보면 성당을 건립할 때 동쪽으로 성당의 방향을 잡은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지금처럼 신부님께서 신자들과 얼굴을 마주보며 미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신자들을 등진 채 태양이 뜨는 동쪽을 나란히 바라보며 미사를 봉헌하셨는데 바로 태양이 재림하실 주님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쪽에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바닷가에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영광을 드려라.”(이사 24,15), “예루살렘아, 동쪽으로 눈을 돌려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바룩 4,36), “동쪽에서 친 번개가 서쪽까지 비추듯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마태 24,27) 라는 성경말씀에서 찾아 볼 수 있듯이 초기 신자들은 동쪽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성당은 동서(東西)를 중심축으로 제대가 동쪽을 향하게 지었으며 신자들은 동쪽을 향해 미사를 드리며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당을 짓기 전 ‘성당의 방향을 정하는 작업’을 바로 오리엔테이션이라 불렀는데, 동쪽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기에 오리엔트(Orient)가 쓰였습니다.



해가 뜨는 동쪽을 중심으로 설계된 오스트리아 빈의 성 슈테판 대성당

성당의 동쪽 방향은 꼭 지리적인 좌표만이 아니라 특정일의 일출에 따라 정해지기도 했는데 이때의 기준은 성당의 주보성인 축일에 해가 뜨는 방향으로 위치를 정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슈테판 대성당의 경우는 건물이 착공된 1137년의 성 스테파노 축일에 태양이 뜨는 지점을 향해 설계되었는데 현재도 성 스테파노 축일이 되면 성당 내부 전체가 떠오르는 햇빛을 받아 환하게 빛난다고 합니다. **필름**

열두 사도 이야기

“내 양들을 돌보아라” (요한 21,16~17)

교회의 반석, 열두 사도 가운데 으뜸이신 베드로 사도

첫 번째 교황님이시자 열두 사도들의 지도자이신 베드로 성인께서는 요나(또는 요한)의 아들로 겐네사렛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며 사시던 어부셨습니다. 동생이신 안드레아 사도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신 성인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어로 시몬이셨는데 예수님께서 케파, 곧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케파란 ‘바위’라는 뜻의 아람어이고, 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마태 16,18)라고 하심으로써 그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 하셨습니다. 또한 “나는 네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마태 16,19)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 따라 가톨릭교회는 베드로 사도께서 첫 번째 교황님이시며 교황님의 수위권을 입증하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으뜸사도로 선택되신 성인께서는 사도들 중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셨는데 성경에서 성인의 이름은 사도들의 명단 중에 언제나 제일 처음에 기록되어 있으며 다른 사도들보다 자주 언급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들의 대변자 역할을 하셨으며 비록 성급한 성격 탓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대사제의 종 말코스의 귀를 잘라버리고 메시아의 사명을 잘못 해석하여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기도 하였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비겁함에서 인간적인 결함을 드러내기도 하셨지만 늘 예수님 곁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특히 “내 양들을 돌보아라”(요한 21,17)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마티아 사도를 뽑아 유다의 빈자리를 메우고 복음선포에 매진하셨습니다. 설교로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사도로서는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성인께서는 64년경 네로 황제에게 체포되어 로마에서 순교하셨다고 전해지는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릴 자격조차 없는 죄인이기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순교하신 바티칸 언덕에는 오늘날 성 베드로 대성전이 우뚝 서 있는데 성인의 무덤은 바로 성전 중앙 제대 아래 지하에 모셔져 있습니다. 배, 열쇠, 닭이 성인의 전통적 상징이고 소아시아의 개종자들을 위해 두 편의 서간을 남기셨습니다. 축일은 성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 대축일인 6월 29일이며 2월 22일은 교황권을 기념하는 성 베드로 사도와 축일로 지냅니다. **가톨릭**



라파엘로_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기시는 예수님(1515)
런던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교구장 동정

■ 가정성화와 생명수호미사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1월 25일(월) 오전 11시 성모당에서 가정성화와 생명수호를 위한 미사를 봉헌하셨다.

사진제공 : 월간 <빛>

■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종신서원



대주교님께서는 2월 2일(화) 오전 11시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성당에서 7명의 수녀님들의 종신서원 미사를 봉헌하셨다.

교구 행사

- 2.15(월) _ 시니어 평생대학 봉사자 프로그램 연수(10시, 교구청 교육원 나동)
- 2.16(화) _ 교구 사제연수(10시, 대신학원 대강당)
- 2.17(수) _ 교리교사학교 입문과정 1차 - 주간반(20일까지, 교구청 별관 대회합실)
- 2.19(금) _ 젊은이 성령세미나(21일까지, 꾸르실로 교육관)
- 2.20(토) _ 교구 사목평의회(12시)
- 2.21(일) _ 가나강좌(9시 30분,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마리아관 강당)
교리교사학교 입문과정 1차 수료미사(14시, 교구청 교육원 다동 대강당)
청소년 건진성사(14시 30분, 성 김대건 기념관)

대리구 소식

2016년 3대리구 성경대학 신입생 모집

모집요강: 낮반(화) 14:00~16:00 / 저녁반(화) 19:30~21:30

모집기간: 3.8(화)까지 / 수강료: 1학기당 6만 원

문의: 3대리구청 사무실, 641-5678



2016년 신앙다이러리 판매

판매가: 10,000원

판매처: 교구 문화홍보실, 계산서원, 성바오로서원, 성바오로팔서원, 바티카노, 삼덕성당 임마꼴라파 성물방, 동천성당 성물방

문의: 문화홍보실, 250-3048

단디 무장을



미사안내

2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2월 15일(월) 10:30 범어성당	한티순교성지후원회 월례미사	2월 15일(월) 11:00 한티피정의집
가두선교단 월례미사	2월 15일(월) 11:00 계산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2월 18일(목) 10:00 평화성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2월 15일(월) 11:00 죽도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2월 20일(토) 10:00 월성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2월 15일(월) 11:00 월성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2월 20일(토) 11:00 성모당

성소 | 피정

천주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자: 2,20(토)

장소: 서울 개화동 수도원

주제: 축성 봉헌생활

대상: 의료봉사에 관심있는 젊은이

문의: (010)3800-1579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일자: 2,21(일) 14:00

장소: 부산 본원 수녀원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문의: (010)9319-1690

전례꽃꽂이 연구회 사순 피정

일자: 2,15(월) 10:00~16:00

장소: 한티피정의집

네이버: 대구대교구 전례꽃꽂이 연구회

성심교육관 2박 3일 무료 피정

기간: 2,19(금) 23:00~21(일) 15:00

장소: 성심교육관, (031)262-7600

출발: 시민회관 16:00

주최: 파티마의성모프란치스코수녀회

문의: 이카타리나, (010)4515-1114

교육 | 모집

5차원 전면학습 리더십 특강

기간: 2,24~26(4차)

장소: 구미선산청소년수련관

대상: 초·중·고·대생 / 선착순: 30명

다음카페: 우아청 참조 / 28만 원

문의: 살레시오수녀회, (010)3883-7004

성경 말씀안에 머무르는 거룩한 독서모임

접수: 2,29(월)까지 / 대상: 전신자

장소: 어버이성경학교 내 별관

강의: 월화(밤반), 화수목(낮반)

주최: 톡핑포교매네틱도수녀회

문의: 815-1114 / (010)2512-4627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프로그램

2박 3일: 3,18(금) 17:30~20(일)

4박 5일: 3,28(월) 14:00~4,1(금)

8박 9일: 3,7(월) 14:00~15(화)

문의: (031)946-2337~8

오순절평화의마음 철야기도회

시간: 매주(화) 23:00~(수) 4:00

버스운행: 현대미래몰 20:30

수성구청 앞 21:00

문의: 김명옥, (010)5529-3186

2016년도 보육교사양성과정 신입생 모집

특별과정(소양) 자격취득가능(1년 과정)

문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

850-3366 / 3377

<http://conedu.cu.ac.kr>(팝업창)

23차 외식산업 성공전략 심포지움

일시: 2,16(화) 14:00, 갑삼동 강당(무료)

내용: 불확실성 시대의 외식업 지속전략

대상: 외식업 경영자, 관리자, 창업예정자

주최: 대구가톨릭대 의료보건과학대학원

문의: 850-3177 / www.oesikceo.com

장례지도사 무시험국가자격 교육생 모집

야간반: 선착순 25명 / 토: 13:00~21:20

월, 수, 금 18:30~22:20(주 20시간)

대상: 20세 이상 / 학력, 남녀 제한 없음

문의: 대가대장례교육원, 555-4404

김길수 교수와 함께하는 성지순례

일본·중국 4박 5일 성지순례

문의: 천주교사도직회(팔로티회)

(010)4239-1929

서울대교구 소속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 2016년 신입생 모집

마감(추가): 2,29(월)까지

과목: 신·구약, 신학일반(전례학 등)

대상: 평신도, 수도자 / (02)745-8339

참조: <http://ci.catholic.ac.kr>

꽃등대꽃
간지갑바라
자연향초전식

지하철 2호선 내당역 3번 출구
예약 053)652-5432
이태도 가브리엘, 윤영미 카라리나

천연염색공방 풀라빛
<http://www.풀라빛.com>

·의류 ·침구류 ·소품
·염색원단 ·감물 ·혼수품

색의 연구가 **이명숙** (루실라)
Mobile : 010-9350-4922
경북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 730번지

대구연세안과

아이디자인라식 · 렌즈삽입술 · 노인수술 · 백내장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의 학 박 사 원장 **박중원** (소시모)
현.연세대의대교수
☎ 053)626-8881~5

미소인치과

원장 **이종현** (프란치스코)
송선희 (안나)

지하철 범어역 4번 출구

전화상담 053)752-7575
www.misoindental.com **하간진료**

백두정형외과
www.baekduos.com

정형외과 전문의 배덕두 아오스딩
배상근 베드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임형준
동인 치안센터 건너편 T. 425-5919

아개 무료 발목 관절경수술
NAVER 백두정형외과 검색

팍앤신입 이비인후과

진료과목 - 성형외과 · 소아청소년과
의학박사/원장 신재훈(루카), 팍동석(아우구스티노)
코수술 전문병원 (축농증, 비염, 코골이, 코성형)
(1호선 성당역 3번 출구)
☎ (053)638-7582(치료빨리)
<http://www.ksnose.com>

성누가종합내과외과
(구.성누가의원)

위 · 대장내시경
건강검진센터(공단검진, 5대암)
원장 이관식(루카) · 원장 서영익(미카엘)

2호선 경대병원역 1번 출구 앞 2층
☎ 053)255-3134

이애현 피임산부인과
www.piumclinic.co.kr

부인과 검사, 갱년기 클리닉
레이저 여성 성형, 비만클리닉
보험공단 자궁경부암검진, 요실금클리닉
상인역 2번출구 하나은행건물 7층 TEL. 053.421.7585

행사 | 모임

2016년도 예비신학생 등록 안내

기간: 2.7(일)~21(일)

대상: 사제성소를 희망하는 중1~고3,

대학, 일반 / 등록비: 2만 원(1년)

문의: 본당 사무실 / 매년 새로 등록
해야 하며, 입시반(고3-대학일반)은

3월부터 1년간 결석 없이 출석해야만

2017학년도 대신학교 지원 가능

등록한 예비신학생은 입학미사에 참석

입학미사: 3.20(일) 14:00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대성당

세계 여성의 날 행사

일시: 3.8(화) 10:30~16:00

장소: 교구청 내 교육원 다동 대강당

특강: 복음화의 첫 출발-가정

미사주례: 조한길(타대오) 대주교

문의: 교구 여성위원회, 245-6115

교육 | 모집

2월 가나강좌 안내

일시: 2.21(일) 10:00~17:30(시간엄수)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마리아관

참가비: 1인 2만 원(당일접수) 무료주차

문의: 교구 가정담당, 250-3114

32기 성요셉 아버지학교 개설

기간: 3.5~4.10(매주 토) 5주간

5주차 1박 2일 가족 피정

장소: 3대리구청 / 15만 원

대상: 초등학교 이상 자녀를 둔 아버지

문의: 교구 가정담당, 250-3114

시편성가, 발성법 연수

일시: 2.14(일) 15:00 / 회비: 1만 원

지도: 김정선 수녀, 박재연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가곡·성가, 통기타, 우쿨렐레, 플루트,

오카리나, 바이올린, 성인생활영어회화,

성가반주법, 동화구연·시낭송지도자반,

천연비누·천연화장품, 텃밭·유화·수채화

문의: 476-6211(지하철1호선 교대역)

프란치스코 성경공부-마르코복음

기간: 3월~5월 매주(수, 목)

장소: 프란치스코눔(월배수도원 뒤)

강사: 강주현(사도요한) 신부

문의: (070)4266-0047 / (010)9100-4114

대구가톨릭학술원 2월 공개 강좌

일시: 2.18(목) 17:30, 꾸르실료교육관

주제: 해외원조 왜, 어떻게 할 것인가

강사: 박정환 교수(가톨릭학술원 원장)

문의: 총무, (010)3933-5875

PBC신앙특강 대구대교구 100년사

부제: 함께 걸어온 우리 100년

대구천주교인들 어떻게 살아왔나?

특강일시: 매주(금) 10:00~11:30

장소: 계산성당 1교리실 / 251-2654

방송일시: 매주(금) 14:05~15:00

채용 | 안내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 공원 조성 공사

군위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

공원> 조성 공사 관계로 2016.2.1.

~12.31까지 김수환 추기경 생가방

문 및 문화해설 활동이 임시 중단

될 예정이오니 양해 바랍니다.

약목성당 청국장 판매

목적: 성당애프 교제

100% 국산콩으로 직접 제조

가격: 두메 청국장 700g에 1만 원

4개 이상 택배비 무료

문의: (054)974-5055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http://cord.fatima.or.kr>

문의: 959-8883 / 940-7126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6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대구주보 광고 추가 모집

일자: 7.31 / 10.30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8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이 원 의 료 기
혈압계·혈당계·혈체어·산소치료기
뜸·부항기·주열기·찜질기
체온계·옥창매트·환자용품·안마기
실버카·보호대·글루코스민·오메가3
변상범(도미니코), 김인숙(아나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053)256-2512(대표), 2513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
053)474-0025, 010-3818-0818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 우체국 옆, 교대역 3번 출구
권 중 문(파비올라)

HS **의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윤(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3대를 이어온 정음교 명가
(주)약령시사람들
◎ 선물용 경곡고 제품 ◎ 공진단
◎ 경곡고(젤류, 환, 차, 맥, 삼푸 등)
◎ 홍삼제품 ※교우 특별 할인
양대석(안토니오) 010-3528-8008
☎ 1644-8807, (053)428-8002
www.약령시사람들.com (약령시장 내)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장 효 원(요셉) 신부
TEL 053)615-4871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H. 016-518-2223
010-8345-9479
위령회장 이주석 요셉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보통의료기관
보통의료기관
척추·어깨·무릎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훈(요한) **참조은병원**
T. 630-8000
지하철 1호선 송현역 2번 출구